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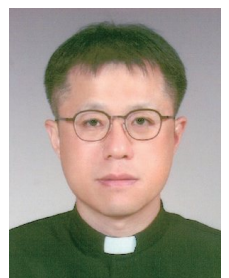
마음을 드높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하늘로 오르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심은 하느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승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 이외에도 다른 함의를 지닌다. 1독서에서 들은 사도행전 첫머리에는 승천 사건이 예수님 이야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곧 승천이 루카복음에서는 마지막 사건이며 사도행전에서는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승천 사건이 한편으로 예수님 이야기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예수님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승천은 예수님 강생을 마무리하는 사건이다. 승천은 사람이 되신 말씀의 지상 활동을 마무리한다. 예수님의 강생이 승천으로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승천으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그분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더 나아가 그분과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과 관련해 오늘 바치는 승천 감사송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 “저희 머리오 으뜸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2독서 에페소서는 승천이 우주적인 차원을 지님을 말한다. 승천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킨 것이다. 승천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실 권한을 받으셨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기도 하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을 파견하시기 때문이다. 승천으로 예수와 세상은 결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부활 40일 이후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신다. 이것은 세상에 파견되는 성령이 승천하신 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승천하신 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란 성부와 성자께서 나누시는 사랑이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인 성령은 세상에 파견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파견된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단면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후 맥락과 연관지어 볼 때, 승천은 예수님께서 혼자만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당신 지상 사명의 완수이자, 그 궁극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드러난다. 승천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세상과 맺으시는 소통방식에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내어주신다’는 점에서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다.



정연우 스테파노 신부 | 교구 미디어국장



제 1 독 서 사도 1,1-11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 서 에페 1,17-23
복 음 마태 28,16-20

주일 진레



권력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화상

- 이승우의 「에리직톤의 초상」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이승우의 「에리직톤의 초상」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이 소설은 1981년 교황 저격 사건(한 터키인 청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저격한 사건)과 에리직톤의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신앙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작가 이승우는 기독교적 신념을 둘러싸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인물의 삶을 통해 신과 인간, 사회의 관계를 차근차근 성찰하고 삶의 구원 문제로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에리직톤'은 신의 나무를 벤 죄로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벌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자기 재산을 모두 먹거리를 구하는 데 써버리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팔아 먹을 것을 구한다. 그의 배고픔은 자신의 몸을 모두 뜯어먹을 때까지 계속된다.

에리직톤이 벌을 받는 까닭은 무엇인가, 신이 그에게 내린 벌은 정당한가? 이 작품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신학교 교수의 말처럼 그는 신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래서 당연히 벌 받아야 할 불경한 인물일까. 이러한 견해와 달리 작가는 에리직톤이 '신성'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구조에 대항하여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의인이라고 해석한다.

신은 신화를 거부한다. 신화를 창조하고, 신화 속에 안주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다. 신은 인간들의 처소에 인간과 함께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분임을 나는 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심과 방법은 곧바로 신의 관심과 방법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묵시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중세의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그랬고 이 땅의 상당한 종교인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신에게 피신함으로써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환상이다. 신은 피난민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다.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있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의 계율만을 받들고, 그 계율을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 받는 신의 가혹한 형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계율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만이 유일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모세와 이집트인, 살인자와 희생자의 이분법은 유지되고 있다. 그 이분법의 구별이 완벽하게 그치는 것은 예수에게 와서이다. 예수는 스스로 죽이고 스스로 죽는다. 어떤 힘도 그를 죽게 할 수 없었다.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는 폭력과 희생을 한 몸으로 꺼안는다. 그것은 그의 구원의 완성이다. 삶은 총을 똑바로 쏘는 것이다.

수직적인 신앙 구조에 대항해 교황 암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마는 형식.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여 수녀가 되었다가 사회 현실에 뛰어들면서 종교적 이상과 현실이 맞닿는 지점을 발견하는 헤령. 사회 변혁의 꿈을 꾸며, 사회 현실에서 벗어난 종교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는 태혁. 신학도의 길을 버리고 기자로 일하면서 이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병욱.

이 작품이 종교를 부정한다고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오히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이 네 젊은이들의 성장 이야기이자, 이는 곧 진정한 신앙을 탐색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그것은 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직적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아닐까. 아마 그것이 우리 곁의 신이 바라시는 일일 것이다.

작품 속의 젊은 주인공들이 매력적인 것은 그들의 삶이 '총을 똑바로 쏘는 삶'이었다는 점이다. 견고해진 모든 권력이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할 때, 그 권력에 대해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그러한 용기를 지닌 자의 모습이 우리가 찾아야 할 자화상이요, 또 다른 '에리직톤의 초상'이다.

신부님과 코로나 사태 국난시기

강희근 요셉 시인/ 가톨릭 문인회

돌아가신 필립보 신부님은 꽃을 좋아하셨다. 혹시라도 행사 끝에 꽃바구니가 들어오면 이웃에 계시던 신부님께 갖다 드렸다. 선종하시기 전 한 두어 주일은 벚꽃 가로수가 도열해 있는 옥종 수곡 진수교 일대의 풍광에 어린이처럼 환호하셨다. 그 시간에 일행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나로서도 행운의 기회였다. 신부님은 좀 불편한 만년을 보내셨지만 로사리오기도! 하면 곧바로 기도의 끈은 정신이 되셨다.

돌아가신 지 사흘, 삼우미사를 교구 성직자 묘역에 가서 참례할 수 있었다. 신부님의 조카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강론을 하셨다.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 갔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먼저 갈릴래아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래아로 가 주님을 뵈올 수 있다고 전하라 한 것이지요. 갈릴래아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활동했던 그 공간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의 갈릴래아는 어디겠습니까? 돌아가신 신부님과 함께했던 교회나 신앙의 친교에 관한 체험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체험에는 아름다운 부분, 거룩한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는 혹시나 나를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셨기에 십자가의 길에서의 동반자로서 체험은 거룩한 것이리라 믿습니다.”

신부님이 사신 만년도 포함되는 국난시기는 코로나19 사태에 교회공동체도 예외 없이 회합도 성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를 어렵게 살고 있다. 어떨 때는 초대교회의 박해시기를 일정 부분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도 한다. 이 시기의 갈릴래아는 어디인지, 무엇이 그 체험 안에 있는 것인지 가슴 서늘해지는 것이다.

나는 부쩍 교회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또는 공동체 의식이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지나가고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1일미사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며 가톨릭의 인재 풀을 활용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에 신뢰가 쌓여간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바티칸 생중계로 교황님 주례의 전대사 전례 ‘인류를 위한 특별기도와 축복’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었다. 교황님은 부슬비 내리는 중에 광장을 홀로 걸어 흰 제의가 젖은 채로 베드로 대성당을 향하셨다. 나이가 드신 걸음에 어깨의 짐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 적어도 그 걷는 걸음이 구세사의 한 줄 뻗은 촛불이라 여겨지면서 교황님이 그럴 수 없이 아프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순간 저 도저한 기도와 성사와 십자가와 복음과 성인들, 순교자들의 피눈물이 즉각의 치유요 부활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우리의 갈릴래아가 바로 여기인 것을!

정치합시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영화, 정직한 후보, 2019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이름, 할머니.(故 김옥희. 1936. 10-2012. 04) 일찍이 부모님을 여윈 제게,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정직하게 살아라.” 산나물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산 황무지가 개발되면서 큰돈을 벌게 되었지만, 사회에 다 환원하시고(‘암투병’ 중 전 재산 기부한 김옥희 할머니), 아픈 몸을 끌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수 약 관 때문에, 할머니 앞으로 든 암보험을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모두 질 거라던 싸움에서 승리한 저는, 할머니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로 갔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자연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정치인, 기호 1번 주상숙

주상숙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절에 가서는 108배를 하고, 개신교회에서는 권사로 활동하며, 수녀님 앞에서는 성호를 긋습니다. 선거 유세 나갈 때는 평소 차던 좋은 시계를 빼놓고, 구두도 허름한 것으로 바꿔 신습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표다.”라는 신념으로 밖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정치가로 살면서 얻게 된 고급(?)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폐돈을 벌니다.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 목소리 높이지만, ‘말로는’입니다.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깊은 산속 홀로 계신 할머니를, 고인이 되셨다고 ‘허위사실유포’를 하며, 주상숙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산속을 다녀오던 주상숙, 큰 비를 피해 잠시 머문 곳은, 할머니가 소원을 빌며 쌓아둔 돌탑 앞입니다.

주상숙 : 4선 꼭 되게 해 주시고, 이참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정치인 되게 해 주세요.

할머니 : 진짜로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저 전 재산 기부한 거 아니죠? 천당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 상숙이 정신 차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 주세요. 제발.

동시에 드린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 할머니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이후 주상숙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입에 발린 말’, ‘접대성 멘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율은 곤두박질칩니다. 정신과를 찾으니 못 고친단 얘기를 빙빙 돌려 거짓말하고, 무당을 찾았더니 할머니 귀신 썬 행세를 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병(?)은 고치지 못하고 선거 전략가를 모셔 선거판을 새로 짭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쇼’를 하던 정치판에서, 정직함으로 ‘쇼’를 해서 지지를 다시 얻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셨다는 할머니의 기부로 만들어진 옥희재단 관련 비리가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린 주상숙. 그 비리는 주상숙을 이용해 당 대표가 꾸민 짓이지만, 꼬리자르기로 도망가고 모든 화살은 주상숙을 향합니다. 그제야 주상숙은, 자신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한 것인지, 정치적 쇼를 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강제된 정직’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정직’한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짧은 며칠이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저는...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후보에서 사퇴한 주상숙은, 재단 비리의 실세가 당 대표였음이 밝혀졌지만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본인이 지은 만큼의 죄값을 치렀으며, 「슬기로운 감빵일기」 책을 냈습니다.

주상숙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그에게 이제 서울시장은 '정치적'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 신는 구두와 사람들 앞에서 신는 구두가 더 이상 다르지 않습니다. 좌우명은 "꽃보다 정직이 아름다워."입니다. 이제 주상숙은, '정치'를 하려 합니다.

‘정치’냐, ‘정치적’이나

왕의 권력에 대한 유혹과 왕이신 분의 권위에 관한 질문이, 악마와 빌라도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 겠소.” 하고 말하였다. - 마태 4,8-9.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마태, 마르, 루카, 요한

악마는 사람을 권력욕으로 유혹합니다. 유혹에 빠져 죄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빌라도 앞에서의 예수님 죄목은 각각 다릅니다. 한쪽은 하느님 모독, 한쪽은 왕 노릇 했다는 죄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같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반란의 주모자였던(마태 27,16)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묶어맨 것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세상권력이, 어떤 공동체나 개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배제시킵니다. 교회도 과거 정치적으로 처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회 스스로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합시다

악마의 유혹과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 예수님의 대답은 법정에서 드러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마태, 마르, 루카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요한

이분은 임금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마가 유혹한 것처럼, 유다 지도자나 빌라도가 생각한 것처럼, ‘힘’과 ‘속임’으로 ‘지배’하는 ‘정치적’ 임금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임금이십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나아가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잘 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보여준 투명성, 그리고 함께한 시민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권도, 개인도, 정치적이지만 않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정치에 대체적으로 충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 요한 19,19

임금께서 수행하셨던 그 사명 그대로, 교회는 ‘왕직’을 수행합니다.

정치합시다.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시다.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진선진 마태오 신부/ 반송본당 주임



성모자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들리는 듯하다.

“아들 예수님, 저는 한평생 당신을 바라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 당신 얼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정들, 사랑스러운 몸짓 하나하나가 이 어미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당신은 저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당신의 눈은 늘 아버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셨고, 저 역시 아버지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주님,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때가 되지 않았지만 당신 어머니의 뜻을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또 한 당신을 찾아오신 어머니를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셨던 어머니를 진정으로 존경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십자가의 길에서 대면하시는 것은 마음 아프시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주님과 어머니, 두 분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성모 마리아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떠나는 아들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 아들 예수님에게 다가설 용기를 내어 나섰지만, 막상 나서서 대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 안이 백지처럼 하얗다. “힘을 내어라.”고 격려를 해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해야 하나, 이 두 마음이 어지럽게 만들어 종잡을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한마디를 해본다. “사랑한다. 아들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시길 빈다.”

예수

이 세상 자체가 온통 내 어깨 위에 지워지니, 누군가의 조그마한 위로라도 받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어머니의 위로가 사무치게 그림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마주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보고 싶으면서도 보지 않아야 하는 그 마음의 눈길 속에 어머니가 마주하고 서 있다. 염려스러운 눈길로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자애롭게 어루만져 주시며, 그러면서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이해하신 듯이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마음이 언제나 나의 위로고 든든한 힘이여 떠나온 나의 고향이었다고 그분께 눈길을 보낸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주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기에,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다고 말해 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일 립

교구/본당

사제평의회

일시: 5월 26일(화) 10:30

장소: 교구청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마산 재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안내

관상적 기도와 사도직에 관심있으신 분
대상: 만 55세 이하의 남녀 신자
문의: 010·8525·115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동티모르 미사는 6월부터)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대상: 신자, 일반인

기 타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하느님 자비의 시간

일시: 매주(금) 14:00~16:00
장소: 로사리오의 집
내용: 14:00 성체현시, 15:00 기도, 미사
문의: 010·7155·3498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 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 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우 04535)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
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
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5686·1362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옹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10월 15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13일 390만원(공동경비 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4차 홍보 주일 담화(2020년 5월 24일)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

제54차 홍보 주일을 맞이하는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들려주시는 홍보 주일 담화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된 실타래처럼 우리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야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직물을 엮어내듯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우리에게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악으로부터 위협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짜깁기하고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삶에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는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지혜와 거짓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첫째이고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곧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건들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번 홍보 주일 담화의 제목은 탈출기에서 뽑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앙의 선조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표징과 기적을 통해 선조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탈출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주님을 대대로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서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의 삶에서 나온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언제나 시의적절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가 되셨기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 안에 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을 증언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품 안에서 엮으셨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당신 삶으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